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5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5.15.(화)	담당부서	신남방통상과
담당과장	송요한 과장(044-203-5710)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 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김세민 사무관(044-203-5712) 조현진 사무관(044-203-5266) 김 효 사무관(044-203-5214)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싱가포르 방문

❶ [산업]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에 합의

❷ [에너지] 스마트그리드, LNG 등 에너지 협력에 합의

❸ [통상·무역]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5. 14.(월) ~ 5. 15.(화)간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**를 방문해, 산업, 에너지, 통상·무역 전반에서 싱가포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.

○ 백 장관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국가(동·서남아 국가)들과 **동반성장, 호혜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·심화**하기 위해 발표한 **신남방정책**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의 **오피니언 리더***이자 **핵심국가**인 **싱가포르로 확대**하기 위해서다.

* 싱가포르는 금년 ASEAN 의장국이자, 한-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

* 신남방정책 목표: 상생의 파트너, 더불어 잘 사는 한-ASEAN 공동체 구현

□ 백 장관은 5.15(화) 싱가포르 **찬 춘 싱(Chan Chun Sing) 통상산업부 장관**과 한-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, **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, 액화천연가스(LNG) 등 에너지 협력,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**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.

○ **(산업)** 한-싱 양국 장관은 한국의 5대 신산업* 중심 혁신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비전 스마트네이션** 프로젝트가 **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**임에 공감하고,

* 5대 신산업: 바이오·헬스, 전기·자율차, IoT 가전, 에너지신산업, 반도체·디스플레이

** 스마트네이션: 국가 전체의 스마트化를 목표로 도시 교통, 물 관리, 공공 데이터 등 각 분야에서 AI,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주도 정책

- 4차 산업 기반기술의 집약체인 ❶**자율주행차 협력**을 위해 양국 정부, 학계,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.

○ **(에너지)** 한-싱 양국 장관은 석유, 원자력 등 전통에너지에서 액화천연가스(LNG) 등 **친환경에너지**, 태양광 등 **신재생에너지로 전환**할 필요성에 공감하고,

- ❷**스마트그리드**(에너지자립섬 등) **등 에너지 신산업,** ❸**액화천연가스(LNG) 협력**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, 에너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가기로 했다.

< 한-싱 산업부 장관회담 주요 논의내용 >

❶ **(자율주행차)** 4차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인 AICBM(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, 빅데이터, 모바일)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 추진

❷ **(스마트그리드)** 에너지자립섬, 스마트빌딩, EMS(에너지관리시스템) 등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모델 발굴 및 제3국 공동 진출 추진

❸ **(LNG 등 에너지)** LNG 등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, 에너지효율성 증진,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추진

○ **(통상·무역)** 한-싱 양국 장관은 **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**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.

- 특히, 싱가포르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 의장국으로써 **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RCEP) 연내 타결**을 위한 의지를 보였고, 한국 역시 **합리적이고, 실용적인 절충방안을 찾아 협상 진전에 이바지 하기로 했다.**

○ **(투자)** 백 장관은 남북정상회담(4.27), 북미정상회담(6.12 싱가포르 개최 예정) 등 연이은 회담 성사로 **한반도 긴장이 완화됨**에 따라 한국의 **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**되고 있다고 강조하고,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.

- 또한, **북미정상회담**을 통한 **한반도 평화정착**과 이를 통한 **역내 경제 활성화**를 위한 싱가포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전하고,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.

□ 백 장관은 한-싱 산업통상장관회담에 앞서 5.14(월)에는 난양공대(NTU) 로보틱스 센터와 자율주행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여, **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을 시찰**하고, 수브라 수레쉬(Subra Suresh) 난양공대 총장과 **한-싱 혁신성장 협력방안**을 논의했다.

□ 백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의 에너지, 상사, 해운, 금융, 건설, 정보기술(IT) 등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(5. 15.(화))해, 기업 활동현황과 **애로사항을 청취**하고 **효율적 비즈니스 활동 방안**을 논의했다.

○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유망 소비재기업의 동남아 진출 지원,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확대 독려, 한-싱가포르 및 아세안 네트워크 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.

○ 백 장관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특별 판촉전을 진행할 예정이며, 싱가포르 등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임아러고 말했다.

- 또한,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('18.2월 출범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각종 협의회를 통한 정부, 기관,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송요한 과장(044-203-5710), 김세민 사무관(044-203-5712),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, 조현진 사무관(044-203-5266),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, 김효 사무관(044-203-52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